

女大生の 家族意識에 關한 考察

—釜山 地域을 中心으로—

A Study on Family Consciousness of Woman
College Student

—With Emphasis on the Woman College Student
in Pusan Area—

東亞大學校 家政學科
專任講師 高 貞 子

Instructor

Dept. of Home Economics, Tong a University

22nd Feb. 1979

KO JUNG JA

◁目 次▷

I. 序 論

II. 理論的 背景

III. 調査對象 및 方法

IV. 結果 및 考察

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As the first communal system of which our society consists is family, the study of its relationship has been the base of analysing the social changes in every society of different culture and age.

In our country under various western influences on traditional consciousness, it is very significant to consider how our family consciousness changes up.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family consciousness of the women students of 2 Universities and 1 woman college in Pusan Area with 675 questioning papers by inquiring the views of family, marriage, birth control and inheritance.

1. General Views of Family System

Joint interest with family is higher than individual, higher educational level wants living in separate with parents, but "Never with parents" is lower in higher grade, and according to sons and daughters abilities they want to charge their parents living expenses. Such proves that they want 2-generations unclear family system.

In decision of children's future affairs, they want compromising method, which means individual idea is brought in our society and feudalistic idea is given way. They want to have job after marriage by means of their improvement, but reform measure for it is presented out.

2. Views of Marriage

They want to marry in 24-26 years old, which is higher in senior. They think it ideal for mate's age to be 3-4 years older, and compromise to be the best method in marriage. But if actual problems Such as date etc. are improved, love marriage will be mostly prevailed. Middle Son is popular in their mate selection.

The conditons of mate selection are in order character, health, vitality in living, lineage, appearance and property, which means they think spiritual attitude the most important in married life. In mate's occupation, liberal one is at top, which shows they expect man's progressive working in society.

They think it affirmative to follow their parents agreement in marriage. This shows strong Confucian morality still remains. but we can't neglect they think both sides judgement vert important.

It is considerable that they have not a definite view about the divination of fitness for marriage. Thorough education against it is demanded.

It still exists that they won't marry when they are in the same surname and family seat. But it is clear that they don't regard it as the reason of breaking off the betrothal. This also means they have not a definite view about it. Therefore

the issue of such marriage needs more discussion and is actualized.

3. Family Plan (Birth Control)

They desire two children, which means they show affirmativeness about the moment of two children bearing. But when have only daughters, if husband wants, they say they will bear child to get son. This shows they can't bravely free themselves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sciousness. They also say they will consider how to do when they shall be had no child. This means the weakness of succession of family live and they want the family system only for husband and wife.

4. Inheritance

Most of them say the difference in inheritance system is unreasonable, which means the consciousness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spread widely into our society. But high ratio of "I don't mind" actually means they still don't mind unequal treatment. This is worthy of notice.

According to above mentions, we conclude such as :

1. Their consciousness of family shows definitely rationism in the transitional stage which is mixed with western individualism and traditional feudalism.
2. According as the society develops into democratic individualism, the family consciousness is expected to become rational individualism rapidly.

I. 序 論

우리 社會를 構成하는 一次的인 要因은 個人이고 그 個人이 構成하는 最初의 生活 共同体는 家族社會다. 家族이라는 概念은 一夫一婦와 그의 子女가 永續的으로 結合되어 共同生活을 하는 하나의 社會團體라고 規定할 수 있다¹⁾. 그러므로 바람직한 家族關係를 通해 하나의 個體가 그 成長過程 中

보다 나은 人格形成을 위한 刺戟과 한 사람의 社會人으로서 貢獻할 수 있는 原動力을 얻게 되므로 家族關係에 對한 研究는 時代와 文化를 달리하는 各 社會에서 長期間에 걸쳐 比較되었고 또 社會的 變化를 分析하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17C 産業革命 以後 18.9C를 거쳐 오늘날 西歐의 社會는 그 構造上 많은 變化를 가져

1) 金斗憲, 現代의 家族, 서울 乙酉文化社, 1975.

왔으며, 家族構造 또한, 크게 달라졌다.²⁾ 우리나라에서도 近代 西洋 文物이 過變적으로 導入됨에 따라 家族 構造의 傳統的인 習俗에 급격한 變化를 招來하여 家本位의 大家族制度가 夫婦 中心의 小家族制度로 변모해 가고 있다³⁾ 즉, 從來의 定婚制度에서 本人意思中心의 婚姻制度, 女子相續權의 認定, 및 戶主相續權의 認定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家族構造上에도 아직 傳統的인 家族 意識으로서 適齡期 男女의 宮合에 對한 關心이라든지 孀婦의 婚姻 기피 傾向등은 우리 社會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一般的으로는 西洋文化의 影響으로 近代化라는 過度期에 처해 있으며 家族生活面에서는 傳統的인 家族制度에서 個人中心主義 家族制度로 改善되어 가는 生活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實情아래 우리들의 家族意識이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매우 意義있는 課題인 것이다.

本 調査는 여성教育 水準의 上乘과 연령의 成熟度를 考慮하여 앞으로 主婦로서의 核心的인 役割을 할 여대생을 通하여 그들이 家族에 關한 어떠한 意識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基礎調査 一 家族一般(家族 構造, 子女 장래 결정문제 職業 與否), 結婚觀(配偶者 選擇, 宮合, 同性同本婚), 家族計劃, 相續에 對한 意識—로서 分析해 보고자 한다.

II. 理論의 背景

傳統的인 社會로 부터 個人主義사회로 變

遷하는 過度期에 있어서 특히 家族構造의 變遷, 부모와의 同居, 婚姻, 家族計劃, 相續에 關한 意識에 中點을 두어 理論的 背景으로 삼고자 한다.

1. 家族一般에 對한 意識

(1) 家族構造의 變遷

家族은 모든 社會制度의 基本單位로서 社會의 變化에 따라 家族制度도 變遷되어 가고 있다. 一般的인 家族構造의 變遷推移는⁴⁾ 첫째, 家族形態의 축소화 및 單純化로서 5人 以上の 평균 人원수가 선진국에서는 3人 壹로 縮小하는 특징을⁵⁾ 들 수 있고 그 특징의 한 理論으로서 Murdock 核家族論을 들 수 있다. 이를 背定的으로 강조한 理論이 소위, Murdock G. P나 Parsons T. 등의 核家族論이다.⁶⁾ 둘째, 家族機能의 상실 過程으로서, Ocburn, W. F.에 의하면 家族機能을 主機能과 副機能으로 分類하고 있지만⁷⁾ 近代社會의 發展에 의해 부속적인 機能을 他의 기관에 移讓시키면서도 本質的인 機能은 家族에게 남겨져 온 것이다. 이 過程의 心理學的 理論으로는 Parsons, T. 의 理論을 들 수 있다.⁸⁾ 셋째, Burgess, E. W.와 Lock, H. J.이 「制度에서 友情으로」(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라고 表現하는 것처럼, 傳統的 慣習이나 制度로 부터 해방되어 순수하게 人間的인 感情을 基礎로 하는 人間 集團에로의 純化를 들 수 있겠는데, 이 意味는 慣習이나 制定의 壓力 또는 法律에 의하여 統制되어 存立하는 것이 아니고 成員 相互의 애정과 意見 및 性格의 일치를 根據로 成立되어 있는 것이다.

2) 許點分, 家族關係, 修學社, 1973 pp 106-109

3)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 1970 pp 306-312

6) 核家族이란 用語는 오늘날 普遍化 되어버렸지만 원래는 Murdock 가 1949년에 刊行한 그의 叢書 「社會構成」에서 처음으로 使用한 學術用語이다.

8) Parsons T.는 家族構造 內에서의 心理的 갈등을 주로 研究하고 있다. 특히, 그의 "Emotional isolation of nuclear family"에 對한 研究는 有明하다.

4) 青山道夫, 外編 家族의 歷史, 家族講座, 弘文堂, 1973 pp 405

5) 青山道夫, 外編 op. cit pp 406

Murdock 가 1949년에 刊行한 그의 叢書 「社會構成」에서 처음

7) 青山道夫, 外編, op. cit pp 415

오늘날 西歐의 高度 産業社會에서는 家族의 現實, 存在 形態의 主力이 核家族으로 옮겨 가서 「核家族化」의 傾向을 顯著하게 提示하고 있고 日本에서도 「昭和30年」代에 들어와서는 급격히 核家族化가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反封建的인 專制君主制 下の 이조때는 家父長制의 大家族의 家族制度로서 家長에게 모든 일의 統制權이 부여되어 있고, 이조 戶籍에서도 평균 家族數는 4人強이고 構成은 夫婦 家族形態가 과반수이나 實質的인 유대관계로 볼때 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 家族이 많았던 점에서 이조의 家族構造는 家父長制 大家族이라고 볼 수 있다.⁹⁾ 그러나 近代의 民主化 및 工業化의 급격한 過程을 겪는 동안 外國思潮의 流入과 社會制度의 變化로 인해 子女만으로 構成된 核家族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¹⁰⁾ 1970年 現在 5.37인이 평균 家族員數이고 그 構成에서 2代 家族이 전국적으로 71%, 서울은 80%로 대부분 核家族化되고 있다.¹¹⁾

(2) 父母와의 同居에 對한 問題

西歐에서는 子女家族과 別居하는 核家族의 構造가 支配的이나 日本에서는 老人의 壓倒的 多數가 子女와 同居를 하고 있으며,¹²⁾ 우리나라에서도 日本과 同一한 實情이다. 그러나 子女의 世代에서는 壓倒的으로 別居를 希望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이처럼 同居 別居를 둘러싼 世代間의 意識의 對立이나 斷層이 오늘날 擴大家族 內¹⁴⁾에서 世代間의 不和의 큰 原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現在 우리 社會에서는 Litwake, E.의 修正擴大家族(Modified extended Family)이 말하는 것처럼 分家를 通하여 새로운 住居單位로서의 核家族을 形成하고 있지만 父母 형제와의 共同體制인 유대를 계속하여¹⁵⁾ 扶養, 및 老後問題를 아들들이 責任져야 한다는 意識이 강하다. 이같이 扶養에 관한 責任感이 徹底한 韓國社會에서는 아들 이 모실 경우 惹起되는 姑婦間의 心理的 葛藤이 큰 問題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들들의 夫養責任은 잘못된 認識이나 父母가 아들 딸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同居하는 方式도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¹⁶⁾ 따라서 父母는 형편 可能한 자식이 모셔야 하며 모시는 자식에게 特別手當을 위한 年金制度의 構想이 必要할 것이다. 그리고 父母子女關係가 냉정한 合理的인 關係로 發展해 가는 그러한 社會의 壓力에 기계적으로 順應하기 보다는 人間의 要求의 建設的인 解決을 위하여 새로운 차원에서의 人間關係를 模索해 나가야 할 것이다.¹⁷⁾

2. 婚姻에 對한 意識

(1) 婚姻의 動機

婚姻이란 自然的 發生 現象이나 本能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制度이며, 關例이다. 즉, 慣習과 道德 態度 理念 理想의 總體이며, 社會的 制限 法律的 制限을 받는 制度이기도 하다.¹⁸⁾

婚姻의 動機는 一般的으로 個人的 欲求와 社會的 意義로 區別할 수 있다. 個人的 欲

9) 최신덕 「社會變遷과 韓國家族」 '79年度 梨大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75

10)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 1970 pp 306-312

11) 최신덕, op. cit

12) 1960年 조사에 의하면 85%가 同居, 田中周友, 清水兼男共編, 家族關係, 建帛社, 1972 pp 204

13) 青山道夫, 外編, op. cit pp 179

15) 青山道夫, 外編, op. cit pp 184-185

14) 金壽珠 家族關係學, 進明文化社, 1973 pp 36

16) 金壽珠, op. cit 1974 pp 230

17) 李効再, 家族과 社會, 서울進明出版社, 1976

18) Henry A. Bowman. Marriage for Moderns. McGraw Hill Book, 1970 pp 72

求는 性的 充足과 種族繼承의 欲望으로서 情緒의 感情的 安定을 주는 것이고, 社會的 意義로는 性的 欲求의 統制, 種族繼承의 機能, 社會結合의 확장機能 등을 들 수 있다.¹⁹⁾ 따라서, 婚姻은 일정한 年齡에 이른 두 男女의 合意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의 社會的 家族的인 關係가 變하여 하나의 새로운 家族을 탄생 시키는 社會的으로 깊은 關聯을 가지는 行爲다. Stephens, W. N.의 調査에서 보면²⁰⁾ 婚姻을 둘러싼 儀式이 전혀 없는 4개 社會(文化人類學的 資料에 나타난 10個 社會中)를 제외한 모든 社會에서는 어떤 種類의 形式이건 儀式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Truxal, A. G.²¹⁾은 婚姻의 動機를 1) 正常的인 애정결혼 2) 財産을 노린 結婚 3) 병역기피를 위한 結婚 4) 향락결혼 5) 精神的 安定을 위한 結婚 6) 社會的 安定을 위한 結婚으로 分類하고 있다.

(2) 婚姻의 目的

古代 西洋社會에서는 宗教와 儀式을 통해 자식을 얻는 데 主안점을 두었으며,²²⁾ 中世 封建社會에서도 婚姻의 心理的 意義가 무시된 채 家門間의 結合수단 새로운 일꾼의 增員 등을 위해 個人的 희생을 要求하면서 行해져 왔다. 이 思想은 東洋에서도 마찬가지로 中國 日本 우리나라에서의 婚姻의 基本目的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上以事宗廟 下

以繼後世」를 婚姻의 目的으로 삼고²³⁾ 夫婦의 結合을 神聖視하고 絶對視하여 어디까지나 집과 父母 男子를 위한 婚姻이었고 個人的 행복보다 철두철미 家系繼承을 전제로 하는 家父長制 家族制度였으며,²⁴⁾ 이즈때 婚姻은 家門의 번영이 그 目的이었으나²⁵⁾ 甲午更張 以後 유럽의 個人的 自由 平等思想과 기독교적 博愛主義思想의 影響으로 오늘날은 個人的 欲求充足과 家族的 社會的인 安定을 目的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現代 美國 社會에서는 로맨틱한 사랑을 婚姻의 表準으로 삼는다는 생각이 支配的이고 그 思潮가 전세계에 걸쳐 급속도로 擴大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²⁶⁾

(3) 配偶者 選擇

從來의 傳統社會에서는 全的으로 父母 내지 家門에 있었으나 近來에 와서 婚姻은 個人的 행복을 우선으로 하여 本人 當事者의 教養과 信念에 의한 配偶者 選擇에 큰 비중을 두어 婚姻을 成功的으로 이끌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Groves의 「무엇이 家族生活의 좋은 출발이 되는가」라는 題目에서의 6가지 條件인²⁷⁾ 1) 健康 2) 좋은 家庭의 훈련 3) 教育 教養과 機能 4) 구세대부터의 實際的인 構造 5) 人生에의 現代的인 출발 6) 充分한 財政的인 基礎 등은 社會的 時代的 背景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달라질 것이 分明하다 하겠다. 그리고 津留宏의 實態調査²⁸⁾에서 「행복한 結婚을 위한

19) 金曠洙, op. cit pp 86

20) 李効再, 家族과 社會, 서울민潮社, 1968 pp 179

21) Truxal A. G. - Merrill, F. M. The Family in American culture, 1947

22) 金曠洙, op. cit pp 89

23) 鄭貞順, 李光奎, 家族關係, 韓國放送通信大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3 pp 126

24) 金曠洙, op. cit pp 89

25) 金斗憲, 韓國家族制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8

26) Leslie, G. R.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p 418

27) Groves and Others, The Family and Its Relationship 1941

28) 津留宏, 家族의 心理, p 89-90

29) 1970年 全國 女大生 392名에 對해 調査한것(중앙일보 1970年 7月 23日 No. 1498 pp 5 女大生의 價値觀)

條件」의 순위는 1) 性格 教養 취미의 일치 2) 理解, 愛情 3) 經濟的 安定 4) 健康 5) 家門 血統이 바른 것 6) 係累가 없는 것 7) 兩親이 承認 8) 容貌가 보통 이상 9) 기타 등이며, 우리나라의 趙 折培교수의 實態調查報告에서는²⁹⁾ 女子大學生의 婚姻相對條件으로 性格(47%) 2) 健康(28%) 3) 經濟力(10%) 4) 學閥(9%)의 順位를 보여 日本의 경우와 비슷한 結論을 얻었다.

婚姻 年齡別로는 古代 英國에서는 父母의 同意下에 男 14才 女 12才로 되어 있고 現美國에서는 대부분의 洲에서 父母의 同意없이 男 21才 女 18才이며 同意下에는 男 18才 女 16才이나, 12才까지 허용하는데도 있으니, 그 한 例로 1968年 14才부터 17才 사이에 婚姻한 쌍이 155,000이나 되었었다.³⁰⁾ 現在, 美國의 婚姻 年齡은 아래표와 같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³¹⁾

성별 \ 년도	1890年代	1950年代	1969年代
男	26.1才	22.8才	22.4才
女	22.0才	22.3才	22.6才

美國의 한 통계에 의하면³²⁾ 어릴 수록 配偶者間的 年齡差가 적다고 하며, 그 中 60%가 4-5才 차이이고, 75%가 3~4才 差로 거의 21才 前後가 되며 평균적으로 男子가 女子보다 2.5才 정도 높고 그 中 10%가 同甲이며, 7名中 1名이 女子 나이가 많다고 한다.³³⁾

(4) 宮合에 對한 問題

東洋 社會의 傳統的인 思考 中 하나는 宿命論이다. 人倫之大事로 여겨왔던 婚姻을 “宮合”이라는 것을 통하여 宿命論과 연관시켜 왔으며, 中國, 日本, 韓國은 宮合을 重視하여 왔다. 中國의 경우 婚姻 條件이 비슷한 家門에서 當事者의 人물을 탐색한 다음 宮合을 보고서 어느정도 決定이 되면 仲媒人을 비로서 選擇하였다.³⁴⁾

從來 韓國 社會에서도 婚姻時 宮合이 成事의 큰 비중을 차지하여 四柱에 의한 宮合과 日曆의 吉凶에 의한 擇日의 習慣이 보편화 되어 있었다.³⁵⁾ 이것은 傳統的인 習慣으로서 오늘날까지도 固守되어 왔지만 時間의 경과와 都市化에 따라 非合理的이며, 傳統的인 이 儀式이 消失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농촌의 한 지역 調査³⁶⁾에서 농촌에서는 宮合의 必要性이 61% 都市는 不必要성이 58%에 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都市와 農村을 莫論하고 어느 정도 宮合에 對한 미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近來에 와서 믿는 方法은 從來와 다르지만 宮合을 보는 傾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으며, 또 사회계층으로도 下流 영세민보다 中·上流에 갈수록 宮合에 依存하는 度가 강한 것 같다.³⁷⁾

(5) 同姓同本에 對한 問題

同姓同本不婚의 풍속은 歲族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淵源은 族外婚으로 그 起原

30)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Monthly Vital Statistics Report Feb. 11, 1971

31) Leslie G. R. Op cit pp 420

32) John Mogeey "Age at First Marriage" in Alvin W. Gouldner and S. M. Miller, eds., Applied Sociology: Opportunities and Problems,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p 249~59

33) Leslie, Op cit pp 420

34)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일지사 1975 pp 91

35) 李光奎, op cit pp 438

36) 崔在錫, op cit pp 384

37) 李光奎, op cit pp 85

은 中國에서 비롯된다.³⁸⁾ 日本에서는 氏族外婚制가 없는 데 反해 韓國에서는 고려말까지 同姓相婚하여 왔으며, 現今은 中國과 같이 氏族外婚制를 採擇하고 있다.³⁹⁾ 兩國의 民法에서 中國은 現在 多같이 同族이라 할 지라도 8寸以外의 者와는 婚姻할 수 있는데 反해 韓國에서는 同姓同本이면 相婚을 禁하고 있는 것은 中國이 韓國에 비해 血緣意識 내지 同族意識이 많이 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며, 또 中國에서는 舊法이나 古代의 規則이 同姓間의 婚姻을 禁止하고 있지만, 實地로는 이것이 適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⁴⁰⁾

仁井田 牧野 兩박사에 의하면 同宗親의 첩이었던 者와 婚姻하는 것은 法律에 禁止되어 왔지만 실지로는 지방에 따라 행해진다고 하였으며⁴¹⁾ Fei 씨도 형이 婚姻後 死亡하면 이 형의 約婚者와 始同生이 婚姻한다고 報告하고 있다.⁴²⁾ 또 異姓親族과의 婚姻도 三國間에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 韓國에서는 異姓親族間은 絶對 婚姻을 않는 데 反해 日本에서는 넓게 行해지고 있으며 Olga Lang 氏도 異姓의 4寸間의 婚姻이 可하다고 하고⁴³⁾ Smith 氏도 姑從四寸이나 娣從四寸과의 婚姻이 可能하다고 報告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이렇게 볼때, 異姓親族間의 婚姻은 中國이 日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의 同姓同本不婚의 適用과 解析은 可

다롭다. 同姓同本이라도 반드시 婚姻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異姓異本이라도 반드시 婚姻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⁴⁵⁾ 이에 對하여 學者에 따라 見解差異가 있다. 하여튼 同姓同本이라 해서 婚姻을 禁한다는 것은 合理的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法에 그 原則을 固守한다는 것은 큰 오점이 있다. 禁止婚 범위 자체가 父系 中心이기에 때문에 男女平等原則에 反하여 또 지나치게 광범위한 禁止때문에 人間의 重大한 自由인 婚姻의 自由를 유린하는 것으로서 古代의 社會의 地理的인 이유로 倫理的이고 優生學的인 見地에서 이 傳統的인 原則을 固守하기에는 너무 큰 희생이 따른다.

3. 家族計劃에 對한 意識

家族計劃은 家族에 관한 計劃으로서 좋은 子女를 알맞은 數만큼 낳아서 잘 길러 잘 살피보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詩聖 타고르는 「잘 기를 것을 생각지 않고 무작정 낳기만 하는 것은 人間의 가장 잔인한 罪惡」이라고 했으며, 인도의 家族計劃 전문가인 Datta, N. Pai 氏는 오늘의 世界人口 40억이 28年 뒤에는 倍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1961年 人口가 약 2,500萬名인데 年間 人口 成長率이 약 3%에 이르므로⁴⁶⁾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23年 마다 倍增하여 1世紀가 되면 5억이 될 것이라 하

38) 金曉珠, op cit pp 70

39) 牧野巽, 東亞における氏族外婚制(戸田貞三博士還曆祝賀紀念論文集)

40) Hsiao-Tung Fei: Peasant Life in China 1939 pp 86

41) 仁井田, 陸 中國의 農村家族 pp 364

42) Hsiao-Tung Fei: Op cit pp 71 pp 86

43) Olga Lang: Chiness Family and Society pp 202

44) Smith: Village Life in China 1899 pp 50

45) 李光奎 op cit pp 63

46) 家族計劃研究院, 男女家族計劃에 對한 態度論文集 pp 395

나 이러한 人口 成長의 지속이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學者들은 家族計劃을 1) 個人的인 必要性, 人口問題⁴⁷⁾ 2) 人口問題 및 國家經濟 發展과 生活改善⁴⁸⁾ 3) 과잉아를 배제함으로써⁴⁹⁾

現在와 장래 家族內의 人間關係와 家庭經濟의 均衡을 유지하는 데 그 意義가 있다고 하였다.

人類가 意識的으로 個人的 必要에 의해 出産을 最初로 제한한 時期는 確實치 않으나 家族計劃의 概念과 理論的 근거는 1789年 英國의 Thomas: R. Malthus(1766~1834)의 人口原理論(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비롯되었으며 1920年代 美國의 Margaret Sanger 여사가 만들어 낸 "Birth Control" 이란 用語가 쓰여졌고 1948년에 국제 家族計劃委員會가 런던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年 11월부터 家族計劃運動이 전개되어 1961年 4月 1日 公적으로 大韓家族計劃協會가 발족되었고 1962년에 國策으로 採擇後 實踐 比率이 다소 증가해 가고 있으나 20% 水準에 불과하다.⁵⁰⁾ 이와같은 現象은 1973~1976년까지 推進된 第三次 家族計劃 사업을 방해한 問題點으로 지적된다. 最終 目標로서 「둘들이 運動」은⁵¹⁾ 1968年 美國에서 전개된 Zero Population Groth(G. P. G.) Movement 와 같은 性質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人口問題를 이해시키고 보다 巨視的 立場에

서 "世界는 하나다"라는 運命共同體 意識을 빌어 보다 더 國家的이고 世界的인 次元으로 그 意義를 살려야 하겠다.

4. 相續에 對한 意識

相續이란 사람이 死亡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生存 中の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戶主權과 財産上의 權利, 義務를 포괄적으로 물려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戶主相續, 財産相續, 祭事相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中國에서는 戶主權과 財産權, 祭事相續權이 확연히 分離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宗祧의 相續은 家産相續의 배후에 숨겨져 거의 問題視 되지 않고⁵²⁾ 財産相續이 主가 된다. 즉, 家長은 직계적으로 繼承되지 않고 家內 最右 世代의 最年長者가 繼承하고⁵³⁾ 祭사도 장남이 獨斷하지 않고 輪番制이고 費用 均등분배된다.⁵⁴⁾ 물론 嫡長男이 重視되기는 하나 조상의 모든 家産이 반드시 그에 계만 繼承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年齡의 長幼나 嫡庶의 여하에 불문하고 형제가 均등 分配를 原則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反해 日本은 家長權을 相續의 第一義로⁵⁵⁾ 삼고 형제간의 差別도 매우 크므로⁵⁶⁾ 장남의 위치는 東洋 三國 그 어느 나라보다 지대하다. 그러므로 장남에게 모든 家長權, 財産權, 祭事권이 긴밀히 結合하여 단독 相續된다. 그러나, 때로는 長女 相續權이나 막내 相續權도 없는 것이 아니다.⁵⁷⁾ 우리나라 에서는

47) 劉永珠, 家族關係學 修學社, 1977 pp 134

48) 文藝出版社 編輯部, 家族計劃, 文藝出版社, pp 26

49) 家族計劃研究院, 家族計劃第三次五個年計劃(1972~76), 1972 p 97

50) 李効再, 李東瓊, 男女大學生의 家族計劃에 對한 態度, 韓國文化研究院論叢 第23集

51) 이동우 "둘들이 운동이란 무엇인가" 가정의 빛, 大韓家族計劃協會, 1971, 5월호

52) 福武直, 家族に於ける封建遺制, pp 305

53) 中國農村慣行調查刊行會編, 中國農村慣行調查第一卷, pp 293

54) 福武直, op cit

55) 鈴木榮太郎, 日本農村社會學原理

56) 柳田國男, 民俗學辭典

대체로 日本과 中國의 중간 形態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家廟, 家屋, 祭田, 墓田, 祭祀, 族譜 등은 長子에게 繼承한 特有의 家産으로 취급하고 노비에 있어서도 嫡長子에게 편중, 財産相續權에 있어서도 형제간 差等を 두는 것이 原則이었다.⁵⁹⁾ 특히, 女子에게는 財産權을 認定하지 않도록 法과 慣習이 묶고 있었으나⁶⁰⁾ 이조말 社會的 變動으로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祭사 相續權도 法律制度 以外的 慣習이라고 판결⁶¹⁾을 내리므로써 相續을 戶主相續權과 財産相續權으로 二分하게 되었다. 現行 民法을 보면 戶主相續制度로서 1) 戶主相續과 財産相續의 分離 2) 장남자의 강제 相續主義 3) 男系干先生義와 庶列의 差別主義 4) 女性의 戶主權의 恒久制度로 들 수 있고 財産相續制度로서 1) 相續人의 범위 확대 2) 女子相續의 不平等한 相續 3) 共同相續制 전환 4) 婚姻中 出生者와 婚姻외 出生者의 同等相續 5) 遺言의 自由, 絶對, 認定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 相續權은 사유가 생기면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V. 調査對象 및 方法

1. 調査日時

1978年 9月 ~ 10月

2. 調査對象

釜山市內에 있는 3個大學(東亞大學, 釜山大學, 釜山女大)을 對象으로 選定하여 標集했다. 學校別 學年別 調査對象者數는 다음과 같다.

① 學校別

구분 학교별	부산대학	동아대학	부산여대
표기	BN	D	BW
조사학생수	189명	238명	248명

② 學年別

학교별 학년별	BN	D	BW	전체계
	(부산대)	(동아대)	(부산여대)	
① 1학년	50명	60명	81명	191명
② 2	41	56명	62명	159
③ 3	43	60	50명	153
④ 4	55	62	55명	172
계	189	238	248	675

3. 說問紙 作成

文獻 및 先行研究를 通해 女大生에 對한 說問으로 釜山市內에 住居하고 있는 100명의 女大生에게 作成하게 하여 그 結果를 檢證하여 (Thurston 法에 의한 問項 妥當度 檢證) 最終적으로 (28) 問項을 選擇했다. (問項內容은 부록에 明示된 바와 같음)

③ 兄弟數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년별	계(%)			
		1	2	3	4	1	2	3	4	1	0	0	4			1	2	3
①	1명	0	0	4.7	0.07	1.7	5.4	11.7	0	2.47	0	0	3.64	1.6	1.9	5.9	1.2	2.22
②	2-3명	24	34.15	25.6	32.7	30	32.1	25	14.5	17.28	37.09	42	23.64	23.0	34.9	24.2	23.2	27.41
③	4-5명	52	46.34	44.1	47.3	50	53.6	48.3	66.1	58.02	38.7	56	58.18	53.9	45.9	49.0	57.6	51.25
④	6명 이상	24	19.51	25.6	20.0	18.3	9	15	19.4	22.22	24.19	22	14.54	21.5	17.6	20.3	18.0	19.12

59) 朝鮮總督府, 慣習調査報告書

60) 정효섭 韓國女性運動史 일조각 pp 12

61) 金曠洙, op cit pp 265

④ 兄弟順位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첫 째	24	36.59	18.6	18.2	20	30.4	18.3	30.6	17.28	19.35	28	47.27	22.5	27.7	21.6	32.0	25.77
② 중 간	46	41.46	53.5	49.1	40.0	41.0	46.7	46.8	46.91	41.93	52	29.09	41.9	41.5	50.3	41.9	44.38
③ 막 내	24	14.63	18.6	23.6	25	17.9	18.3	14.5	23.46	27.41	16	16.36	24.1	20.8	17.6	18.0	20.02
④ 의 동 딸	6	7.32	9.3	9.1	15	10.7	16.7	8.1	12.35	11.29	4	7.27	11.5	10.0	10.4	8.1	9.83

⑤ 宗教別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종교없음	66.0	58.54	60.4	54.5	56.7	71.4	51.7	74.2	30.86	59.67	62	54.55	48.2	63.5	57.5	61.6	58.10
① 기 록 교	6.0	9.76	18.6	18.2	23.3	7.1	21.7	9.7	20.99	17.74	16	18.18	17.8	11.9	19	15.1	15.56
③ 불 교	18.0	7.32	4.7	16.4	15	12.5	18.3	14.5	39.51	9.67	16	21.81	26.2	10.0	13.7	17.4	16.20
④ 천 주 교	10	24.39	11.6	10.9	15	9	8.3	1.7	6.17	8.06	2	5.45	68	12.6	7.2	5.9	8.95
⑤ 기 타	0	0	4.7	0.0	0	0	0	0	2.47	4.83	4	0	0	1.9	2.6	0	1.28

⑥ 祖父母와의 同居與否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예	24	41.46	18.6	16.4	21.7	16	21.6	14.5	18.5	29.03	16	81.81	20.9	27.7	19	36.6	26.47
② 아 니 오	76	58.54	81.4	83.6	78.3	84	78.4	85.5	81.5	70.96	84	18.19	79.1	72.3	81.9	63.4	73.53

4. 調査方法

3個大學 女大生들에게 試行要領을 說明한 後 그 答을 직접 作成하게 하였다. 800 枚를 配分하여 회수된 說問紙는 위 表와 같다.

V. 結果 및 考察

1. 家族 一般에 對한 意識

(1) 家族 構造

同居하고 싶다(36.24%) 가능하면 안한다(60.71%)로 이는 女大生들의 意識 저변에 同居의 義務感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高學年에서 「絶對 안한다」는 率이 뚜렷하게

問 6 : 婚姻 後 父母와 同居與否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絶對안함	4	2.4	2.3	1.8	3.3	7.1	0	1.7	3.7	3.2	0	0	3.7	4.4	0.7	1.2	3.05
② 간혹하면 안함	60	46.3	60.5	67.3	50	57.2	71.7	74.2	55.6	41.9	66	70.9	54.9	48.4	66.3	70.8	60.71
③ 모르겠다	36	51.3	37.2	30.9	46.7	35.7	28.3	24.1	40.7	54.9	34	29.1	41.4	47.2	33	28.0	36.24

낮은 것으로 보아 婚姻 適齡期인 高學年은 社會가 지니고 있는 現實과 慣習에 適應하려는 傾向을 보이며 또한 先行研究에서는⁶²⁾ 「同居한다」가 女高生 38.1% 女子工員 50.5

%로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別居를 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家族構造는 意識面에서는 核家族에로의 과도기적 단계에 놓여 있음이 明視된다.

問 7 : 老後 子女와의 同居 希望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아들과 함께	30	14.6	20.9	16.4	16.7	26.8	11.7	24.1	11.1	24.2	4	14.5	17.8	22.6	11.8	18.6	17.86
② 딸과함께	0	2.4	4.7	5.4	5	9	1.7	1.7	3.7	9.7	10	1.8	3.1	7.5	5.2	2.3	4.58
③ 부부만 따로	70	83.4	74.4	78.2	78.3	64.2	84.9	74.2	83.9	66.1	84	83.7	78.6	69.8	81.7	79.1	77.13
④ 양로원	0	0	0	0	0	0	11.9	0	1.3	0	2	0	0.5	0	1.3	0	0.43

오래 장남이 모시는 것이⁶³⁾ 우리의 道德 觀念이었으나 1963年 調査⁶⁴⁾에서 「따로 산다」가 35.6%이며, 本 調査에서는 77.13%로 상당한 變化를 보여준다. 또한 解決策으로서 흔히 提示되고 있는 딸과의 同居는(4.58%) 그 現實性이 稀薄함을 立證하므로 老

後 夫婦가 따로 살기 위해서는 社會保障制度가 確立되어야만 하겠다. 특이한 것으로 양로원 希望이 거의 없어 現 양로원에 對한 認識이 매우 否定的임을 알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1971年度 84.4%의 同居希望을 보이고 있다.⁶⁵⁾

(2) 子女 將來 決定問題

問 8 : 家族 個人 利益 干先與否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개인이익	4	7.3	4.7	5.4	10	5.4	3.3	4	6.2	65	6	14.5	6.8	6.2	4.6	8.1	6.45
② 가족이익	48	51.2	39.5	45.4	48.3	41.2	50	45.3	53.1	56.5	40	29.1	50.3	50.9	43.8	40.1	45.79
③ 공동이익	48	41.5	55.8	49.2	41.7	53.4	46.7	50.7	40.7	37.0	54	56.4	42.9	42.8	51.6	51.8	47.76

家族利益(45.79%)과 個人利益(6.45%) 매우 對照的이나 共同利益이 率이 높은 것은 現 個人主義 思想의 道入으로 인하여 運

命共同體的인 家族 中心에 個人利益을 첨가하는 形態로 向함을 알 수 있다.

問 9 : 子女의 將來 決定問題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본인중심	32	36.6	30.2	34.6	23.3	25.1	28.3	25.8	33.3	22.6	30	23.6	29.8	27.1	29.4	27.9	28.73
② 부모중심	0.0	0.0	0	3.6	0	12.5	0	0	0	8.1	0	0	0	7.5	0	1.2	2.06
③ 합의해서	68	63.4	69.8	61.8	76.7	62.4	71.7	74.2	66.7	69.3	70	76.4	70.2	65.4	70.6	70.9	69.21

「合意해서」가 69.2%를 나타내 相互 人格 尊重과 個人中心思想 및 父母 尊敬心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또한 「本人中心」으로가 次順으로 個人主義思想의 뚜렷한 침투를 암

시해 次後 子女問題는 本人中心을 干先하며 父母는 子女를 先導 後援하는 역할로 변모 할 것 같다.

(3) 職業 與否

問 10 : 父母 老後 生活費 負擔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만 아 들	2	0	0	0	0	1.8	0	1.7	0	3.2	2	0	0.5	1.9	0.7	0.6	0.9
②	아들공평히	36	14.6	20.9	20.0	28.3	35.8	20	21.8	24.7	27.4	24	27.3	28.8	27.7	21.6	23.2	25.93
③	형편에따라	44	63.4	62.8	63.6	51.7	51.7	58.3	65	60.5	51.6	48	52.2	53.4	54.1	56.1	60.5	56.06
④	부모의 능력에 따라	18	22.0	16.3	16.4	20	10.7	21.7	11.5	14.8	17.8	26	20.5	17.3	16.3	21.6	15.7	17.91

「形便에 따라(56.06%)」 「만아들」(0.9%)로 현격한差異를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 장남이 責任져 왔던 예전과는 다른 現象을 나타내며, 扶養責任이 강하여 經濟能力에 따라 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現實的

으로 거의 장남이 責任지고 있는 實情에 對한 강한 반발을 보여주며, 父母能力이 17.91%로 앞으로 老後生活이 西歐式으로 점차 進향되어감을 말해 준다.

問 11 : 婚姻 後 職業與否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원 한 다	48	41.5	53.5	65.5	51.7	41.2	41.7	49	62.9	29.0	36	49.1	55.5	37.7	43.1	54.1	47.47
②	원 하지 않는다	22	19.5	9.3	14.5	11.7	26.7	23.3	16	13.6	32.3	20	25.5	15.2	25.8	18.4	18.6	19.53
③	가늠하면 맞는다	30	39.0	37.2	20	36.6	32.1	35	35	23.5	38.7	44	25.4	29.3	36.5	38.5	27.3	33.0

19c 以前만 하더라도 女性의 高等教育은 反對되었으나⁶⁶⁾ 近代에 이르러 職業의 세분화와 기계의 發達로, 女性의 社會 進出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現實에서 「職業을 願한다」(47.47%)가 제일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願하지 않는다」와 「可能

하면 갖지 않는다」가 52.53%로 과반수가 넘는 것은 아직도 傳統的인 賢母良妻 意識이 유효하며, 또 職業을 갖게 됨으로써 若起되는 여러가지問題點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⁷⁾ 現在 美國에서는 1930年 29% 1940年 35% 1966年 62%로 增加一路에

62) 大韓家政學會誌, 第16卷 3號 大韓家政學會 1978. 9 pp 972

63) 李効再, 論考 「서울시 家族의 社會學的考察」 韓國文化院論叢(梨花 1959 pp 46)

64) 李効再, op cit

65) 青山道夫, 外編, 家族問題 社會保單家族講座 7 弘文堂, 1974 pp 179

66) Olive A. Hall. Home Ec Careers & Home Making. John Wiley 1958 pp 17

67) 許點分, 家族關係, 修學社, 1973 pp 185

있고⁶⁸⁾ 우리나라도 非農家 就業人口中 30.9 %가 女性임⁶⁹⁾을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도 就業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問 12 : 職業을 願하는 이유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경제적	20	7.3	14	17.8	11.7	19.6	11.7	4.1	7.4	9.7	8	3.6	12.0	12.6	11.1	7.0	11.1				
② 자기발전	30	36.6	41.9	41.8	33.3	44.6	36.6	49	40.8	32.3	38	36.4	35.6	38.9	38.5	42.4	38.54				
③ 자기생활	50	43.9	44.1	43.6	53.3	34	51.7	43.7	46.9	58.0	52	49.1	49.7	45.9	49.7	45.3	47.56				
④ 기 타	0	7.2	0	1.8	1.7	1.8	0	3.2	4.9	0	2	10.9	2.7	2.6	0.7	5.3	2.8				

現實的으로나 將來에 對한 安定에서 就業이 必要하다고 생각되나 「취업한다」가 11.1%로 낮은 率은, 現實에서 職業을 갖는 것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행한 사정, 불가피한 事情에 의한 것이다⁷⁰⁾라는 것과 유사한 現象이며 自己發展(38.5%) 自己生活(47.56%)이 비교적 높은 率을 보이는 것은 人間으로서의 意義를 家庭生活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으며 女性의 社會 進出로 因해 社會變化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에 對한 夫婦關係, 子女關係 등의 背定的 否定的 要因이 存在하게 된다.⁷¹⁾⁷²⁾ 그러므로, 원활한 就業生活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要件이 必要하다고 생각되며 女性의 意識構造, 가치관 등의 개혁이 必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2. 婚姻에 對한 意識

(1) 配偶者 選擇

問 13 : 婚姻 希望 年齡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0	4	1	2	3	4	1	2	3	4	
① 16~20세	1.2	0	0	0	0	1.8	1.7	0	0	12.9	0	0	0.5	5.7	0.7	0	2.0				
② 21~23	11.1	9.8	9.3	7.3	20	17.9	5	11.5	10	32	12	9.1	13.1	10	8.5	9.3	10.9				
③ 24~26	71.6	82.9	83.7	80	72	71.4	86.6	85.5	85	75.8	80	85.5	75.9	76.1	84.5	83.9	80.0				
④ 27~29	14.8	7.3	7	10.9	8	7.1	6.7	4	1.7	6.5	8.0	5.4	8.9	6.9	7.3	6.4	6.3				
⑤ 30세이상	1.3	0	0	1.8	0	1.8	0	0	3.3	1.6	0	0	1.6	1.3	0	0.6	0.8				

24~26才가 80.0%로 압도적이며 高學年 일수록 높다. 이는 卒業後 1~2年의 여유와, 社會生活를 願하고 있으며 先行研究⁷³⁾

에서 21~25才(90.2%), 26~30才(8%)인 結果로 보아서는 現 大學教育制度 자체가 (卒業 平均 年齡이 23才임)이 나이를 希望

68) Henry A. Bowman op cit pp 44

69) 李効再, 都市人의 家族關係, 韓國研究院, 1971 pp 307

70) 許點分, op cit pp 183

71) 李効再, op cit pp 309~313

72) 劉永珠, 어머니의 職業有無와 養育態度가 兒童의 人性에 미치는 영향, 1971 大韓家政學會誌 9卷 2號

73) 李睦子 「여고생의 家族意識에 관한 實證의 考察」 淑大大學院 碩士論文, 1969, pp 51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歐美各國의 평균초혼 年齡比較」

		1900 이전	1900	1920	1930	1940	1950	1960
노르웨이	남	28.2	27.8	27.6	28.7	29.3	29.3	28.2
	여	26.4	25.9	25.4	25.9	26.4	26.4	26.2
미 국	남	26.0	25.0	24.0	24.0	24.0	23.7	23.2
	여	22.0	21.0	21.0	21.0	21.0	20.5	20.4
스웨덴	남		28.0	29.0	29.0	29.0	-	28
	여		26.0	26.0	26.0	21.0	-	25
핀란드	남	27.3	27.1	26.6	26.6	27.2	26.0	24.9
	여	25.2	24.8	23.8	23.8	23.4	23.6	23.7
영국과	남	25.8	26.6	27.9	27.4	27.5	27.2	26.0
웨일스	여	24.4	25.1	25.8	25.5	24.5	24.5	24.1

[Good,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1963) P40-47]

특히, 美國에서는 1969年 男 22.4才, 女 20.6才로 初婚 年齡이 낮아지고 있는 實情이다.⁷⁴⁾

問 14 : 婚姻 年齡의 差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동 감	.2	2.4	0	0	0	0	1.7	0	2.5	8.1	2	0	1.6	3.7	1.3	0	1.58
② 1~2세	22	7.3	7.0	14.6	15	14.3	10	14.5	18.5	11.3	8	5.5	18.3	11.3	8.5	11.6	12.36
③ 3~5세	72	90.3	93.0	83.6	76.7	78.6	81.6	83.8	71.6	75.8	82	92.7	73.3	80.5	85	86.6	81.69
④ 2이상	4	0	0	1.8	8.3	7.1	6.7	1.7	7.4	4.8	8	1.8	6.8	4.5	5.2	1.8	4.37

「3~5才」가 81.69% 首位이고 男女共學보다 女大, 低學年보다 高學年이 더 높다. 이는 高學年일 수록 現代化되어감을 말해주고 이러한 差는 性格 調和에 도움이 되며 社會的으로도 進出하여 安定을 갖는 時期를

고려한 것 같다. 美國의 경우 平均年齡差가 2~3才인 것은⁷⁵⁾ 高等學校나 大學을 卒業하는 21才 前後에 社會的 安定을 갖는 동시에 婚姻하게 되는 社會的 여건 때문인 것 같다.⁷⁶⁾

問 15 : 婚姻 : 婚姻方式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중매결혼	2	12.2	2.3	0	6.7	5.4	3.3	3.2	1.2	8.1	12	7.3	3.1	8.2	5.9	3.5	5.3
② 연애결혼	22	41.5	51.2	47.3	33.3	21.4	33.3	30.6	45.7	22.6	26	32.7	35.6	27.1	36.3	36.6	33.9
③ 절 총	76	46.3	46.5	52.7	60	73.2	63.4	66.1	53.1	69.3	62	60	61.3	64.7	58.8	59.9	60.8

대한 가정학회지

「절충」이 60.8%로 가장 높고 「戀愛結婚」이 33.9%, 「中媒結婚」이 5.3%로 극소수인 것은 傳統的인 방식에 對해 否定的이지만 戀愛結婚에는 아직 거리가 있음을 말해 준다. 西洋의 自由, 個人主義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를 實踐할 수 있는 諸

여건이 아직 成熟하지 못함을 뜻하기도 한다.⁷⁷⁾ 그러므로 本人意思 중심이지만 아직까지 父母에게 의존하려 하는 것 같으며 異性交際의 現實인 問題를 고려하여 組織적이고 系統인 教育이 必要하겠다.

問 16 : 配偶者의 형제 順位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첫 계	10	34.2	18.6	9.1	28.3	12.5	13.3	25.8	19.8	4.8	14	16.4	19.9	15.9	15.0	16.9	16.96				
② 둘 계	76	48.8	74.4	83.6	60	69.7	73.3	74.2	65.4	74.2	80	67.3	66.5	66	75.8	75.0	70.63				
③ 막 내	12	12.2	7	7.3	10	1.6	11.7	0	13.6	21.0	6	16.4	12.0	16.9	8.5	7.5	11.12				
④ 외동아들	2	4.8	0	0	1.7	1.8	1.7	0	1.2	0	0	1.9	1.6	1.9	0.9	0.6	1.30				

「중간」이 70.63%로 가장 높은 것은 장남이나 외동에 비해 扶養責任이 적고 媳父母와의 同居 可能性이 稀薄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 事實은 本 調査의 問6의 結果와 일치한다. 또한 외동은(1.3%), 韓國 家庭에서의 一般의인 見解가 父母의

과잉 保護로 性格上 自立心이 결여되어 있고 姑婦間的 갈등이 아들로 인하여 더욱 심해진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學校別로는 女大가 막내에 대해서 더욱 反應을 보이는 것은 유의할 만하다.

問 17 : 配偶者 選擇 要件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교 육	20	19.51	22	14.5	19.75	27.41	14	12.73	15	19.6	10	3.2	20.9	22.6	17.6	9.9	16.81				
② 재 산	4	0	2	0	0	1.61	0	0	3.3	1.8	0	1.6	2.1	1.3	0	0.6	1.14				
③ 성 격	5	51.22	27	58.2	51.85	43.54	46	65.45	13.3	48.2	53.3	56.4	49.2	47.2	52.3	59.9	48.65				
④ 생 활력	4	9.76	22	0	7.41	6.45	8	3.64	30	7.2	8.3	48	6.3	7.5	5.9	2.9	8.20				
⑤ 가 문	4	2.44	9	0	0	3.22	2	9.09	6.7	9	0	0	2.1	5.0	0.7	2.9	3.51				
⑥ 건 강	12	17.07	18	27.3	18.52	16.12	30	9.09	21.7	12.4	26.7	34	16.7	15.1	22.9	23.8	20.19				
⑦ 외 모	2	0	0	0	2.47	1.61	0	0	10	1.8	1.7	0	2.7	1.3	0.7	0	1.52				

希望順位는 性格, 健康, 教育, 生活力, 家門, 外貌, 財産 등, 1970年 全國 女大生을

通한 調査와 거의 일치하며⁷⁸⁾ 性格을 最干先으로 한 것은 精神的 基礎위에 家庭을 구

74) Leslie, op cit pp 420

75) Leslie, op cit pp 420

76) Leslie, op cit pp 420

79) 李睦子, op cit pp 27

77) 金囁洙, op cit pp 104

78) 金囁洙, op cit pp 93

女大生の 家族意識에 關한 考察

축할려는 염원으로 생각된다. 이는 1965年 서울 家庭法院에 나타난 家庭破綻의 원인 규명 統計分析에 「性格」이 婚姻 決定條件의 最下位인 것과는 對照的이며, 女高生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는 生活力, 健康, 性格,

教育, 職業, 財産, 外貌, 家門의 順位로 79) 나타난 것은 특이하다. 또한 女高生, 女大生이 家門과 外貌를 무시하고(3.5%, 1.52%) 있는 것은 傳統的 結婚視의 變호를 말해 준다.

問 18 : 配偶者의 職業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회 사 원	22	16.7	39.5	47.3	16.7	32.1	36.7	32.3	22.2	22.6	3.2	23.6	20.4	27.7	36.3	34.3	28.9
② 공 무 원	12	13.3	2.4	10.9	13.3	17.9	6.7	13	7.4	8.1	22	12.2	10.5	14.5	10.5	12.2	11.68
③ 은 행 원	0	0	0	7.3	0	3.6	0	0	1.2	0	0	0	0.5	1.3	0	2.3	1.02
④ 교 사	6	3.3	7.0	0	3.3	1.7	0	1.7	2.5	4.8	0	1.8	3.7	3.1	2	1.2	2.63
⑤ 선 원	4	0	0	0	0	3.6	0	0	1.2	0	2	0	1.6	1.2	0.7	0	0.89
⑥ 자 유 업	26	36.7	39.5	14.5	36.7	23.2	43.3	42	34.6	27.4	30	40	32.9	28.3	38.3	32.6	32.88
⑦ 기 타	30	30	11.6	20	30	17.9	13.3	11	30.9	37.1	14	22.4	30.4	23.9	12.2	17.4	22.0

自由業이 32.88%로 높은 것은 比較的 자
기나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 般員이(0.89%) 가장 낮은 것은 요즈

음 女大生들은 失婦中心의 家庭을 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2) 宮合

問 19 : 宮合與否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본 다	28	31.7	14	23.6	31.7	39.1	28.3	35	27.2	48.4	26	41.8	28.8	41.5	23.5	33.7	31.33	
② 안 본 다	16	29.8	21	20.0	29.3	17.9	31.7	16	18.5	14.5	10	12.7	20.9	17.6	21.6	16.3	19.55	
③ 봐도 좋고 안 봐도 좋다.	56	40	65	56.4	40	43	40	49	54.3	37.1	64	45.5	50	3	40.9	54.9	50.5	49.12

「봐도 좋고 안 봐도 좋다」가 49.12%로서
미련이 있음을 말해 주며, 아직까지도 背定

的 反應을 보이므로써, 이 意識을 合理的으
로 改善할 必要가 있는 것 같다.

問 20 : 宮合으로 父母가 反對할 경우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전체)				계(%)
	1	2	3	4	1	2	3	4	1	2	4	4	1	2	3	4	
① 단념한다	8	0	4.7	7.3	0	14.3	3.3	1.7	2.5	12.9	34	10.9	31	11.9	13.7	6.4	8.31
② 소신대로 한다	28	33.3	44.1	45.4	33.3	32.1	41.7	30.6	42	12.9	32	38.2	35.6	28.9	39.6	37.8	34.61
③ 고려해 본다	64	66.7	51.2	47.3	66.7	53.6	55	67.7	55.5	74.2	34	50.9	61.3	59.2	53.6	55.8	57.18

「斷念한다」가 8.31%로 낮은 반면 완전히 무시하는 率(34.61%)도 높지는 못하며 「고려해 본다」가 57.18%로 傳統的 思考와 近代的 合理主義 思考 사이에서 確實한 自己 信念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異性交際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社會의 諸 여건과도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合理的인 教育을 통한 확고한 自己 實踐力이 있어야 될 것 같다.

問 21 : 婚姻時 父母同意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필요하다	44	48.9	39.5	43.6	55	55.3	50	65	49.4	64.5	64	47.2	49.7	57.2	51.1	52.3	52.29
② 필요하지 않다.	0	0	0	3.7	3.3	10.7	1.7	1.7	1.2	1.6	0	0	1.6	4.4	0.7	1.7	2.02
③ 가능하면 얻는 게 좋다.	56	51.1	60.5	52.7	41.7	34	48.3	33.3	49.4	33.9	36	52.8	48.7	38.4	48.2	46.0	45.69

「必要하다」(52.29%)와 「可能하면 얻는 게 좋다」(45.69%)의 背定的인 態度로 보아 간접적이거나 父母의 同意를 얻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며 父母에 對한 尊敬心이 남아 있다는 증거라고 보겠다. 그러나 「可能하면 얻는 게 좋다」와 「必要없

다」가 47.71%로 이는 個人主義 自由의 理念을 구현하려는 現象으로서 장차 父母의 同意가 弱될 것 같다. 1979年 1月 1日부 터 시행되는 「父母 同意 없이 男女 20才가 되면 婚姻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위의 추정 을 뒷받침 해 주는 것 같다.

問 22 : 父母가 婚姻을 反對할 경우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반대해도 한다	0	2.4	0	3.6	3.3	0	1.7	1.7	0	1.6	0	1.8	1.0	1.2	0.7	2.3	1.33
② 설득해서 되도록한다	92	87.8	88.4	90.9	91.7	89.3	80	90.2	98.8	70.9	76	92.4	94.8	81.8	80.9	91.3	87.33
③ 그만 둔다	8	9.8	11.6	5.5	5	10.7	18.3	8.1	1.2	27.5	24	5.8	4.2	17	18.4	6.4	11.34

問21에서의 推想的인 内容과는 달리, 大多數가 父母同意의 必要性을(문21 98%) 강하게 느낀 때문인지 87.33%가 설득하여 婚姻이 成立되도록 한다고 답하고 1.33%의

극소수만이 「反對해도 婚姻한다」고 답한 것은 配偶者 選擇時 뚜렷한 自己 意思보다는 父母의 意思를 반영하여 받아 들이려는 傾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同姓同本婚

問 23 : 同姓同本婚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좋아하면 휴관	54	48.8	34.9	38.2	43.3	28.6	35	30.6	29.6	17.7	32	29.1	35.1	29.6	34.2	32.5	34.29
② 안된다	40	26.8	41.9	29.1	33.3	41.2	48.3	42	51.3	45.2	48	54.6	42.4	40.3	46.8	41.9	41.61
③ 동거한다	26	24.4	23.2	32.7	23.4	30.2	16.7	27.4	19.1	37.1	20	16.3	22.5	30.1	19.0	25.6	24.10

民法 제 809條에 「同姓同本인 血族사이에는 婚姻하지 못한다」과 規定되어 있다. 本 調査에서도 「안된다」가 41.6%로 首位를 나타내 同姓不婚이 우리 觀念속에 뿌리 박

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34.29%가 「좋아하면 상관없다」고 하므로써 同姓同本婚도 近親이 아니면 찬성하는 方向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家族計劃에 對한 意識

問 24 : 希望 子女數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1명	16	4.9	7.0	10.9	10	3.6	10	9.7	14.8	3.2	16	14.5	13.6	3.7	11.1	11.6	10.04
② 2명	64	63.4	74.3	67.3	60	57.1	48.3	56.3	58.1	48.4	52	60	60.2	55.3	56.9	61.0	58.92
③ 3명	14	29.3	14	18.2	21.7	35.7	35	32.3	22.2	41.9	32	25.5	19.9	36.5	28.1	25.6	26.99
④ 4명이상	6	2.4	4.7	3.6	8.3	3.6	6.7	1.7	4.9	6.5	0	0	6.3	4.4	3.9	1.8	4.05

65~67年 사이의 전체 可姓女性의 希望 子女數는 3.9名 72年度 3.64名에⁸⁰⁾ 비해 本 調査에서 2名이 제일 높은 率으로써 둘 낳기 運動에 對한 背定的인 態度를 볼 수 있으나 高等教育을 받은 20代에서 둘 낳기 운

동의 수용 可能性이 어느 集團보다도 큰 소 지를 지녔음에도 31.04%가 3名 以上을 願 하는 것은 아직, 家系를 이을 아들을 낳아 야 한다는 意識이 잔존함을 말해 준다.

問 25 : 두 名의 子女가 딸일 경우

학교별 학년별 선택지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둘만 낳음	66	43.9	62.8	63.6	65	53.6	51.7	65	64.2	51.6	72	58.2	64.9	50.3	61.4	62.2	59.78
② 더 낳음	10	4.9	0	7.3	1.7	9	13.3	8.1	11.1	4.8	8	5.5	7.9	6.3	7.8	7.0	7.04
③ 부모, 남편이 원하면 낳음	24	51.2	37.2	29.1	33.3	37.4	35.0	26.9	24.7	43.6	20	36.3	27.2	43.4	30.8	30.8	33.18

1972年度 14~44才의 기혼여성의 調査에서 全國的으로 53%가 아들을 갖기 전까지는 딸이 몇이 되더라도 아이를 갖겠다고 했 으며, 극단적으로 無男일 경우 첩을 얻어서 라도 아들을 갖겠다는 率이 서울 25%, 全 國 50%로 기혼여성의 男兒選好傾向이 매우 높음을 보여 주었다.⁸¹⁾ 여기에 비해 本 調査에서는 7.04%가 아들의 絶對性을 주장하

므로써 大學生集團의 男兒選好傾向이 다른 集團에 비해 꽤 낮은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으나 33.18%가 「父母나 남편이 願한다 면 더 낳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女大生들이 個人的으로는 進步的인 西歐思想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家庭이 아직 傳統的인 家族 意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 고 있다.

80) 保健社會部, op cit pp 35

81) 行動科學研究所, 家族計劃의 心理學的探索, 서울 1972 pp 17

問 26 : 無子일 경우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그대로 살아 가고 싶다.	26	29.3	27.9	25.5	36.7	19.7	23.3	16	27.2	32.3	28	20	29.8	27.0	26.1	20.3	25.95
② 양 자녀를 두겠다.	30	41.5	34.9	29.1	36.7	35.7	25	40.3	44.4	19.4	38	29.1	38.3	30.8	32	33.2	33.65
③ 그때 봐야겠다.	44	29.2	37.2	45.4	26.6	44.6	51.7	43.7	28.4	48.3	34	50.9	31.9	42.2	41.9	46.5	40.40

「그대로 살아 가고 싶다」(25.95%)가 적지 않은 反應을 보이는 것은 老後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自立意識을 내포하는 듯하며 「양자를 두겠다」(33.65%)는 意識이 比較的 높은 것은 家繼承의 意識이 아직

잔존하고 또 結婚生活에 子女가 꼭 필요하다는 傳統的 構造를 意識하고 있는 듯하나 「그 때 봐야 알겠다」(40.40%)가 제일 높은 것으로 보아 이 問題가 아직 女大生에게 現實問題로서는 거리가 먼 것 같다.

4. 相續에 對한 意識

問 27 : 財産 相續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부당하다	58	63.4	51.2	63.6	58.3	53.6	51.7	67.7	58.1	48.4	68	61.8	58.1	54.1	56.9	64.5	58.59
② 괜찮다	42	36.6	48.8	36.4	41.7	46.4	48.3	32.3	41.9	51.6	32	38.2	41.9	45.9	43.1	35.5	41.41

「아들 딸 공평히」가 44.02%로 差別的 態度가 弱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問 10項에 老後 生活費 負擔은 子女의 共同責任으로 한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만아들에게 더 많이」가 9.11%인 것은 父母扶

養과 財産相續 問題를 관련시키는 現象이며, 과거 封建的 意識이 아주 弱해졌다는 點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民法上 財産相續 問題에의 差等은 現實과 相當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問 28 : 男女 財産相續의 差

선택지	학교별 학년별 BN				D				BW				학 년 별				계(%)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① 만아들이 더 많이	6	7.3	14.0	9.7	8.3	5.4	5	14.5	12.4	12.9	6	7.3	9.4	8.8	7.8	10.5	9.11
② 아들에게 공평히	44	56.1	41.9	30.9	35	35.8	25	35	30.9	40.2	22	34.5	35.6	43.4	28.8	33.1	35.55
③ 법규정에 의해	32	34.1	34.9	52.7	33.3	51.7	58.3	46.4	46.8	32.3	52	51.2	38.8	39	49.7	50.5	44.02
④ 사회기준	18	2.5	9.2	7.3	23.3	7.1	11.7	4.1	9.9	14.6	20	7.0	16.2	8.8	13.7	6.4	11.32

「부당하다」(58.59%)가 과반수 以上인 것으로 보아 男女 不平等思想은 變하여 女權을 주장하는 것 같으나 「괜찮다」(41.41%)가 比較的 높은 것은 現實의으로는 아

직도 보수적인 家族制度와 傳統的으로 억눌려 있는 現象의 一面을 보여준다. 이로 보아 女性이 아직도 不平等한 대우를 認定하고 있는 것은 注目할 만 하다.

IV. 結 論

本 論文의 研究目的에 立脚하여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家族 一般에 對한 意識

1) 우리나라 家族構造에서 共同利益이 個人利益보다 率이 높은 것은 傳統의인 思想보다는 運命共同體라는 점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同居는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別居를 願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自身이 老後에는 「따로 살겠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父母 老後 生活費는 「형편에 따라」가 率이 높은 것으로 보아 意識面에서는 二代의 核家族制度를 願하고 있음이 立證된다.

2) 將來 子女問題의 決定은 個人主義 思想이 導入되어 封建主義 思想이 붕괴되어 가는 過程으로서 折衷式 方法을 지향하고 있다.

3) 婚姻後 職業與否는 女性을 위한 社會的 與件의 組成으로 자기향상을 위하여 願하기는 하나, 이로 인해 惹起되는 問題點과 現在 職業女性에 對한 否定的인 態도의 영향으로 忌避하는 現象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女性就業을 위해서 이러한 諸 問題點의 改善이 提示되어야만 하겠다.

2. 婚姻에 對한 意識

1) 配偶者 選擇時 理想的인 年齡差는 3~5才로 男女性格調和와 男性의 社會的 安定을 考慮한 것으로 보여지며, 婚姻方法으로 「折衷」이 가장 높으나 異性交際등의 現實的인 問題가 改善되면 本人 中心主義 婚姻으로 志向될 것으로 보인다. 配偶者 兄弟 順位로는 社會的 家庭的으로 가장 自由로운 「중간」을 擇하고 있으며 選擇要件은

性格, 健康, 教育, 生活力, 家門, 外貌, 財産의 順位로 精神的인 問題를 가장 重要視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職業은 自由業으로 男性의 進取的인 社會活動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父母同意는 背定的인 態度가 대부분으로 儒敎的 道德 觀念이 강함을 보여주고, 本人 當事者들의 意見도 매우 重要視하는 것 같다.

2) 宮合은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으며, 또한, 宮合이 나쁠때,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非合理的인 宮合에 對한 確實한 見解가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이에 對한 細心한 教育이 要望된다.

3) 同姓同本婚의 禁忌 現象은 아직도 存在하나, 破婚의 理由로 삼지 않으려는 것은 同姓同本婚에 對한 確實한 見解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계속적인 同姓同本婚에 對한 確實한 見解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계속적인 同姓同本婚의 問題가 舉論되어 現實化되어야 하겠다

3. 家族計劃에 對한 意識

子女數는 2名으로 이는 “둘 낳기 운동”에 對해 背定的인 態度를 보이는 듯하나 子女가 딸일 경우, 남편이 願한다면 더 낳는다는 것은 個人的인 家族意識으로는 進步的인 思想을 갖고 있으나 아직도 傳統的인 家族意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子女가 없을 경우는 「그때 봐야 알겠다」가 首位로서 家系繼承思想의 弱化和 夫婦中心의 家族制度로 志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相續에 對한 意識

「財産相續制度의 차이는 不當하다」로 男女平等意識이 우리 家族制度에도 적지 않게 침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괜찮다」의 率이 상당한 것은 現實的으로는 아직도 不

平等的 待偶를 받아도 좋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注目할 만하다. 이와 같이 女大生の 現在の 家族意識은 西歐의 個人主義와 傳統的 封建意識의 과도기 속에서 合理的으로 志向하려는 意識을 뚜렷이 볼 수 있으며 社會가 民主主義의 個人主義로 發展해 감에 따라 家族意識도 급속도로 合理主義의 個人主義로 흐를 것으로 豫測된다. 특히 오늘날 前近代의 教育을 받고 있는 젊은 세대인 女대생들이 宮昏문제, 家族計劃, 相

續문제에서는 매우 消極的 反應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確固한 自己信念이 부족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教育으로 여성的 矜持와 信念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轉轉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研究對象과 調查地域의 범위를 확대하고 比較분석하여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點들을 조사연구한다면 보다 精確한 資料가 될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1. 金斗憲: 現代의 家族, 乙酉文化社(1975)
2. 許點分: 家族關係 修學社(1973)
3.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1970)
4. 金疇洙: 家族關係學, 進明文化社(1973)
5. 李効再: 家族과 社會, 進明出版社(1976)
6. 鄭貞順, 李光奎: 家族關係 서울大學校 出版部(1973)
7.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1968)
8.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일지사(1975)
9. 劉永珠: 家族關係學, 修學社(1977)
10. 金斗憲: 幹鮮家族制度研究
11. 정효섭: 韓國女性運動史, 일조각
12. 李効再: 論考「서울市 家族의 社會學的 考察」韓國文化院 논총(1959)
13. 李効再: 都市人의 家族關係 韓國研究院(1971)
14. 李陸子: 「女高生の 家族意識에 關한 實證的 考察, 大大學院碩士論文(1969)
15. 최신덕: 「社會變遷과 韓國家族」(1979) 년도 梨大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1975)
16. 家族計劃研究院 「男女家族計劃에 關한 態度」論文集
17. 文藝出版社 編輯部, 家族計劃, 文藝出版社
18. 李効再, 李東瓊: 男女大學生의 家族計劃에 대한 態度,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第23集
19. 이동우: “둘들이 운동이란 무엇인가” 가정의 벗, 大韓家族計劃協議會(1971)
20. 民俗學研究所, 民俗學辭典
21. 大韓家政學會誌, 第16卷 3號 大韓家政學會(1978)
22. 劉永珠: 「어머니의 職業有無와 養育態度가 兒童의 人性에 미치는 影響, 大韓家政學會誌, 9卷 2號(1971)
23. 行動科學研究所, 家族計劃의 心理學的 探索(1972)
24. 鄭孝淑: 우리나라 女子靑少年의 家族形態에 對한 價値觀 研究, 大韓家政學會誌, 第16卷 3號(1978)
25. 靑山道夫 家族의 歷史 家族講座 1, 弘文堂(1973)
26. 津留宏: 家族의 心理
27. 牧野 巽: 東亞における 氏族外婚制 (戶田貞三博士還曆祝賀紀念論文集)
28. 仁井田: 陸, 中國의 農村家族
29. 福武直: 家族に於ける 封建遺制
30. 中國農村慣行調查刊行會編, 中國農村慣行調查第一卷
31. 鈴木榮太郎: 日本農村社會學原理
32. 柳田國男: 民俗學辭典
33. 朝鮮總督府: 慣習調査報告書
34. 靑山道夫: 家族問題, 社會保障 家族講座 7 弘文堂(1974)
35. Henry A. Bowman Marriage for Mode-

- rns. McGraw Hill Book (1970)
36. Truxal A G.-Merrill F. M. The Family in American Culture (1947)
 37. Leslie G. R. The Family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38. Groves and the Others. The Family & Its Relationships J. B. Lippincott Company (1953)
 39. John Moge. "Age at First Marriage" New York (1965)
 40. Hsiao-Tung Fei peasant Life in China (1939)
 41. Olga Lang : Chinese Family and Society
 42. Smith : Village Life in China (1899)
 43. Olive A. Hall Ec Careers & Home Making John Wiley (1958)
 44.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Monthly Vital Statistics Report Feb. 11 (1971)

이 설문지는 여대생의 가족식에 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다음 질문 사항에 누락되는 것이 없게끔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1) 귀하는 지금 몇 학년에 재학중입니까?
 - ① 1 학년 ② 2 학년
 - ③ 3 학년 ④ 4 학년
2. 귀하는 가정에 형제자매가 몇 입니까?
(본인포함)
 - ① 1명 ② 2~3명
 - ③ 4~5명 ④ 6명 이상
3. 귀하의 형제 자매중에서 순위는?
 - ① 첫째 ② 중간
 - ③ 막내 ④ 외동딸
4. 귀하의 종교는?
 - ① 종교없음 ② 기독교
 - ③ 불교 ④ 천주교
 - ⑤ 기타
5. 귀하의 가정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 결혼후 부모와의 동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안한다.
 - ② 가능하면 안한다.
 - ③ 동거한다.
7.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은?
 - ① 아들과 함께 ② 딸과 함께
 - ③ 부부만 따로 ④ 양로원
8. 가족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중 어느것이 우선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이익 ② 가족이익
 - ③ 공동이익
9. 자녀의 장래 문제를 결정할 때 어느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중심 ② 부모중심
 - ③ 합의해서
10. 부모의 노후 생활비 부담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 ① 만아들 ② 아들 공평히
 - ③ 형편에 따라
 - ④ 부모의 능력에 따라
11. 결혼후 자신이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까?
 - ① 원한다. ② 원하지 않는다.
 - ③ 가능하면 갖지 않는다.
12. 직업을 원한다면 그 이유는?
 - ① 경제적 ② 자기발전
 - ③ 자기생활 ④ 기타
13. 결혼연령은 몇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6~20세 ② 21~23세
 - ③ 24~26세 ④ 27~29세
 - ⑤ 30세 이상
14. 결혼시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 ① 동갑 ② 1~2세
 - ③ 3~5세 ④ 그 이상
15. 결혼시 어떤 방법을 원합니까?
 - ① 중매결혼 ② 연애결혼
 - ③ 절충
16. 배우자 선택시 귀하가 원하는 배우자의 형제 중에서 순위는?
 - ① 첫째 ② 중간
 - ③ 막내 ④ 외동아들
17. 배우자 선택 요건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3매만 쓰시오.

- 조건의 예 : 교육, 재산, 성격, 생활력, 가문, 건강, 외모
18. 배우자 선택시 어떤 직업의 남성을 원합니까?
- ① 회사원 ② 공무원
③ 은행원 ④ 교사
⑤ 선원 ⑥ 자유업
⑦ 기타
19. 결혼하기 위해 궁합을 보시겠습니까?
- ① 본다 ② 안 본다.
③ 봐도 좋고 안 봐도 좋다.
20. 자신은 좋은데 궁합이 나빠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단념한다. ② 소신대로 한다.
③ 고려해 본다.
21. 결혼은 부모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가능하면 얻는게 좋다.
22. 만약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반대해도 한다.
② 설득해서 되도록 한다.
③ 그만둔다.
23. 동성 동본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좋아하면 상관없다.
② 안된다. ③ 동거한다.
24. 장래 자녀를 갖는다면 몇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25. 두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둘다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그만 낳는다. ② 더 낳는다.
③ 부모나 남편이 원하면 더 낳는다.
26. 장래 무자녀일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
② 양 자녀를 두겠다.
③ 그 때 봐야겠다.
27. 여자의 상속분이 남자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부당하다. ② 괜찮다
28. 재산 상속제도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아들이 더 많이
② 아들에게 공평히
③ 법규정에 의해
④ 사회기증